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12월은 한국양돈업계에 영향을 미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이사)

우리는 80년대를 보내면서 마지막 89년에 흑심한 불황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물론 70년대를 보내면서도 79년 불황으로 겪은 고통보다 양돈산업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고통의 크기와 깊이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었다.

한 세기를 보내고 또 한 세기를 맞이하는 90년대는 대망보다는 89년의 불황에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90년 한 해도 가격때문에 시달린 한 해였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모든 것이 가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격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가격이 시장의 모든 정보를 자유스럽게 표시하는 것이야지 외부의 인위적인 힘에 의해 결정될때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5월들어 일시적으로 돼지값이 마리당 180,000원(90kg기준)이 넘어서자 축산정책이 아닌 물가정책차원에서 돼지고기 수입압력이 높아졌고, 드디어 5월 28일에는 수출한 물량만큼 수입업자에

육가공 원료로 수입을 허용하므로써 돼지고기 수입이 재개되었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었지만 수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반발이 커서 대기업의 돼지고기수입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정부도 가격안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0월 1일 가격안정대제도를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양돈불황후에는 가격안정대제도가 단골메뉴로 나왔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UR협상 등 수입개방을 앞두고 지켜볼만하며, 법으로 정해지고 수급조절(가격안정)예산을 충분히 세운다면 양돈농가에는 복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가격이 결정된다면 문제이다. '89년 불황이후 양돈농가의 감소와 분뇨처리, 인력난, 사료값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걱정이움이 보장되는 선에서 정하여져야지, 자칫 일시적 돈가상승이 돼지고기수입의 명

1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농업,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UR협상의 최종타결을 목표로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등 90년의 마지막 12월도 어렵게 넘어가고 있다.

우리 앞에는 이밖에도 마사회의 체육부 이관, 관세·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연동제폐지에 따른 쇠고기 소비 증가 문제, 가격안정대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등이 산적해 있다.

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방화시대를 맞아 도체등급제와 부위별 차등가격제 실시로 돼지고기의 육질 향상을 기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이에따른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이며, 소비자란 물론 국내소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기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삼겹살, 목덜미살을 선호하는 우리의 기호도에 어떻게 가격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량방향 등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를 기회로 연동제가격이 철폐되고 가격을 자율화 할 경우 이미 이들 부분의 고기가 비싸게 팔리는 등 가격차등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정육점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쇠고기 중등육을 기준으로 3,300원 하던 것을 13.6% 인하하여 2,850원에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절운영하여 육류의 소비자가격 안정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다.

육류중 수입쇠고기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정책으로 가격안정을 시키고 가격을 자율화 시키는 정책에서 90년대 축산업계의 앞길을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적인 식생활 문화와 유통구조에서 이익은 유통업자에 가고 이러한 가격정책은 수입육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1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농업, 농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UR협상의 최종타결을 목표로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등 90년의 마지막 12월도 어렵게 넘어가고 있다.

12월은 참으로 바쁘고 힘든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축농가들의 숙원인 관세·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 요구에 대두박의 관세 인상 움직임과 축산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마사회의 체육부 이관 및 축산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 양돈업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여러 일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희망의 새해를 맞게 되기를 바란다.